

일자리 만들고 지역경제도 살린다

임실군, 민선7기 대표공약 '취약계층 임실사랑 상품권 지원사업' 시행

임실군이 주민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앞세우며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먼저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취약계층 임실사랑 상품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12월 31일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를 공포하여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홍보와 신청을 받고 있다. 취약계층 임실사랑 상품권 지원사업 대상은 임실군의 경제적 취약계층인 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 중증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이다.

군은 1세대당 연 30만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며, 1세대에 지원 대상자

가 2명일 경우 연 40만원, 3명 이상일 경우 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한다.

설과 추석 명절에 상품권을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훈훈한 명절을 보내도록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상품권 수혜대상은 약 1,200명 정도가 될 전망이다.

이들 군민들의 상품권 적극 활용으로 경제 선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2019년 설명절 시행 후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점차적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임실군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복지서비스 정책이 국가적 인정을 받아 기초생활분야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다.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2018년 기초생활보장분야 평가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하며,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임실군이 선정되기도 했다.

심민 군수는 "복지분야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차별화된 정책을 발굴하였던 부분이 여러 평가에서 다년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도 복지행정의 적극 발굴로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공모 주력

순창군이 2019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새마을사업) 공모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마을사업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중 하나로 도시와 농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0월 읍면을 대상으로 공모 대상지를 신청 받아 검토한 결과 30년이상 노후주택 비율 78%, 슬레이트 주택비율 74%인 유등면 유촌·유천마을을 1개 지구로 묶어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부처 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1차 서면평가와 2차 대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통해 오는 3월



순창군이 새마을사업 공모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말에 최종 결정하게 된다. 공모사업 예비계획서를 다음달 15일

까지 전라북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춘향애인 전국 5대 브랜드 도약 추진

남원시가 지역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을 전국 5대 브랜드로 도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매출 851억원과 전국 10대 농산물에 선정된 춘향애인을 올해 전국 5대 브랜드 도약을 목표로 연초부터 힘차게 움직이고 있으며, 2020년 연매출 1,000억원을 올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농가현장 체험과 홍보활동도 펼치고, 수도권 직거래장터에 참여하는 농가에는 부스비와 참가 보상을 지원해 부담을 덜어준다.

2013년 출발한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은 첫해부터 6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려 성장가능성을 보였으며, 2014년 농협중앙회의 전국 농산



물 브랜드대전에서 전국 12대 농산물 공동브랜드에 선정되면서 700억 달성답을 수상하는 등 2014년 725억, 2015년 759억, 2016년 766억, 2017년

830억, 2018년 851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춘향애인이 이처럼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남원농산물의 우수성과 철저한 품질관리 및 반점과 농민들이 어려워하는 유통과 판매를 조합에서 맡아 농민들은 농사에 전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1인 소비자 시대에 맞춰 농산물 소포장과 국내의 시장을 확대하는 등 한발 앞선 판매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한편 춘향애인은 매출이 늘어나면서 참여 농가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초창기 딸기, 파프리카, 감자, 상추, 오이, 멜론, 포도, 배 등 8개였던 품목이 육성품목 7개(토마토, 방울토마토, 오이, 배, 수박, 애호박, 양파)를 더해 15개로 늘어났다.

/남원=김기두 기자

신혼부부 최초 주택 구입·부부 합산소득 이하

남원시, '2019년 이렇게 달라진다' 책자 홍보

남원시는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담은 '2019년 남원시 이렇게 달라진다'란 제목의 홍보책자를 제작해 홍보에 나섰다.

책자에는 남원시 주민생활 관련 제도의 변경사항과 산업 경쟁, 세계 부동산, 문화예술, 복지 여성 보건의료, 환경 녹지, 건설 교통 분야 등 7개 분야 28개 사업으로 구성, 시에서 새롭게 변경·시행되는 제도와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의 제도와 시책의 주요내용을 함께 실었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홀벌이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일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남원사랑상품권을 3월부터 1만원권, 1천원권 2종을 발행하며, 사용처는 관내 가맹점 등록 업소로 자세한 사항은 2월말 홈페이지에서 게시하고, 연매출 4,800만원 이하 남원시 관내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0.3%를 지원한다.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양파, 생강, 견고추, 노지감자, 대파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2월부터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를 확대 시행해 지난해 12만원의 지원금을 15만원으로 인상하고,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금을 일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며, 농번기 공동급식을 4만원씩 60일을 상향 지원한다.

또한 매월 소득·재산 하위

90% 가정에 지원되었던 아동수당(10만원)이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확대 지급되며,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부모(3~5세아동)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액이 1인당 월 1만원에서 월 1만5천원으로 인상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대상을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정부지원금 시간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상향하며, 올해 처음으로 넷째 이상 자녀에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무료로 지원하고, 오는 9월 노암동 한신아파트에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개소한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국민행복카드가 단태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다태아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출생축하용품은 목욕용품 7만원, 유아차구입비 10만원으로 상향하며, 다자녀 육아용품 지원이 넷째이상 25만원에서 셋째이상 25만원으로 변경된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77억1,500만원으로 확대해 그중 올해 신규사업으로 경로당에 식사를 제공하는 조리사 지원사업 및 만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희망자에 목욕권(1매당 4천원) 10매를 지원하느라 본인부담금 2천원이 있다.

빈집 소유자에게 리모델링 비용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임대하는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을 확대해 5년간 무상임대료 변경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나서

남원시는 지난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범시민적 차원의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1인당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은 약 414개의 높은 수치로, 이에 따라 법령을 개정해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제과점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되어 소비자는 필요할 경우 제과점 측에 비용을 지불하고 제공 받아야 한다. 종이봉투 및 소포백은 무상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생선·정육·채소 등 표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 혹은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물기가 발생하는 냉동식품을 담기 위한 봉투는 사용이 가능하다.

왕길성 남원시 환경과장은 "시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주 및 시민들의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며, 1회용품 사용억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순창군이 산림자원 보호와 산림환경피해를 방지하고자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이와 관련 군은 다음달부터 1개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묘지설치, 택지조성, 농지조성, 축사시설, 관상수, 조경수, 산림내 자연석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무허가 임목벌채, 산지전용허가지 경계침범 등 각종 사업장 불법행위 등이다. 군은 지난해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13건을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주된 적발사항으로 불법산지전용 8건, 무허가벌채 1건, 기타 4건이다.

현행 법령상 불법산지전용 적발시 산지관리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내 불법 임산물 절취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한 무허가 임목벌채 및 굴취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산지내 불법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 과실수 식재시 불법적인 행위들이 적발되고 있어 군민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목숨을 잃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이를 강력히 단속해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하고 소중한 산림자원도 지키며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여성농업인 복지사업 추진

남원시가 '여성친화도시 1번지'라는 명성에 걸맞게 농업·농촌에서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2019년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원시에서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능력향상을 위한 대응도작업대를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펼쳐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을 위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과 농번기 근로부담을 해소 하는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도 확대 추진한다.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은 지원금을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하고,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1일 부식비를 2만원에서 4만원으로, 급식일수는 40일에서 60일로 늘린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은 도우미 임금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도우미 단가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이환주 시장은 "여성농업인이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남원시의 빈틈없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지명인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